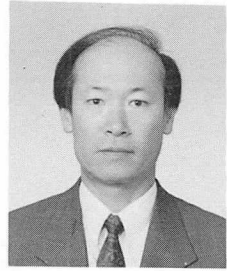


계유년 한해를 마감하며



고영두 박사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올 한해동안에도 양돈업에는 일찍이 겪지 못한 크고 작은 일들로 불안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환경규제, 노동력 부족 및 불안정한 가격 등은 국내문제일 뿐아니라 밀어 닥치는 수입개방에 안절부절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크게 관심거리가 되었던 몇가지를 들추면

첫째, 무허가 축사 규제조치이다. 이것은 돈이없어 영세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양돈이 마치 죄인인양 취급을 받고 있었는데 전면 구제를 함으로써 양돈인에게 크게 활력소가 된것이다.

둘째로는 양돈업 허가 상한선 철폐에 관한 일이다. 양돈업의 불황으로 양돈 농가들이 쓰러지게 되므로 부동산 투자를 노리는 농토가 대기업인에게 몰리게 되는데도 기업양돈이 국제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이유로 이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일부 양돈가를 제외한 일반 양돈가는 무척 어려운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많은 양돈인의 끈질긴 반대운동으로 저지되었던 사실이다.

셋째는 TGE, PED 등 전염성 질병문제이다. 금년에는 3월부터 육돈값이 호황에 접어들어 그 동안의 적자 운영을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나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에 이르기까지 전염되어 모 처럼의 기회를 오히려 놓친 농장이 많이 생겼다. 피해자가 발병을 감추고 있어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20만두 정도는 폐사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철저한 축사소독과 방역이 중요하나 잠깐의 실수로 인하여 설마하는 무관심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양축자금 지원이다. 양돈 계열화 사업을 희망하는 10개소에 1개소당 35억원씩 융자하여 양돈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하나 양돈 경영의 기본을 갖춘 자에게는 매년 확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다섯째, 양돈기술 단기과정 실시이다. 사단법인 양돈산학협동연구회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에

“
 나의 경험이
 10년 혹은 15년이
 되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영농기술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하는 자만에 빠져 있는 농가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산비 절감을 시키는데는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개개의
 요인에 대하여 세부항목을 잘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국내 경쟁력에도
 견디기 어려운데 어찌 국제 경쟁력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있는 양돈인을 상대로 1주일간 양돈에 관한 재교육 혹은 새로운 양돈인을 위하여 전국 강사 21명을 초빙하여 양돈인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매년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지만 양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추적인 것이 교육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양돈가의 전문지식이 국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지면관계로 생략하고 당장 다가오는 새해에는 돼지고기 냉장육이 수입 자유화하게 되었으니 이에 우리 양돈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영농을 해야 한다. 냉장육이 수입된다고 하지만 돼지가격 문제는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우리나라의 양돈가는 나의 경험이 10년 혹은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영농기술을 누가 가르칠 것인가 하는 자만에 빠져 있는 농가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생산비 절감을 시키는데는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개개의 요인에 대하여 세부항목을 잘 고려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국내 경쟁력에도 견디기 어려운데 어찌 국제 경쟁력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변해가는 과학영농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축협에서는 유통구조 개선에 앞장서서 양돈가가 마음놓고 생산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3D현상에서 기피하고 있는 양돈생산자 보호차원에서 축협 본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생산자는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신농정은 기술양돈, 고품질의 돈육생산, 해외 수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을 충실히 이행하여야만 우리나라 양돈이 안정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싶다. 